

13. <보기>는 남한과 북한의 어문 규정 일부이다.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<p>◆ 남한의 '표준 발음법'</p> <p>제10항</p> <p>겹받침 'ㄱ', 'ㄴ', 'ㄹ', 'ㄷ', 'ㅌ', 'ㅍ'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[ㄱ, ㄴ, ㄹ, ㅍ]으로 발음한다.</p> <p>(예) 녀[녀], 앓다[안따], 넓고[널꼬], 외곶[외곶], 활다[할따], 값진[갑찐]</p> <p>다만, '뱌-'은 자음 앞에서 [뱌]으로 발음하고, '넓-'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[넙]으로 발음한다.</p> <p>(1) 뱌소[뱌:쏘], 뱌지[뱌:찌], 뱌는[뱌:는 -> 뱌:는], 뱌게[뱌:게], 뱌고[뱌:꼬]</p> <p>(2) 넓-죽하다[넙쭈카다], 넓-둥글다[넙똥글다]</p> <p>◆ 북한의 '문화어 발음법'</p> <p>제9항</p> <p>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호상관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* 받침 "ㄱ, ㄴ, ㄷ, ㄹ"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 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[ㄱ]으로 발음한다.</p> <p>례: 녀살[녀쌀], 북다[북따], 부엌세간[부엌세간], 낚시[낙시]</p> <p>* 받침 "ㄹ, ㅍ, ㅂ, ㅅ"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[ㅂ]으로 발음한다.</p> <p>례: 뱌다[뱌따], 읍다[읍따], 없다[업따], 높다[놉따]</p> <p>그러나 받침 "ㄹ"은 그 뒤에 "ㄱ"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가 올 때는 [ㄹ]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"여덟"은 [여덜]로 발음한다.</p> <p>례: 넓고넓은[널꼬널븐], 넓구나[널꾸나]</p> <p>* 호상관계: 상호 관계.</p> <p>* 무성자음: 성대(聲帶)가 진동하지 않고 나는 자음.</p> <p>* 토: 북한에서 조사, 접사, 어미를 구분하지 않고 이르는 말.</p> <p>* 뒤붙이: '접미사(接尾辭)'의 북한어.</p>
--

- ① '값도'는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[갑또]로 발음해야 옳은 것이군.
- ② 겹받침은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특정한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군.
- ③ 받침 'ㄹ' 뒤에 어미가 오는 경우는 남한과 북한의 겹받침 발음이 동일하군.
- ④ 자음 앞의 '뱌-'은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 장음인지 단음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군.
- ⑤ 남한과 북한은 모두 특정 어간이나 단어의 겹받침 발음에 대한 예외가 제시되어 있군.